

가슴 철렁해도 힐링 출렁...장성 새 명물 '옐로우 출렁다리'

장성호 수변길 협곡에 길이 154m 조성
호수 위 가로지르며 수려한 풍광 감상
심장 쫓기는 경험 '또 하나의 재미'
한번에 1000여명 통과해도 끄떡없어
'옐로우 장성' 대표하는 관광상품 부상



옐로우 출렁다리

아름다운 트레킹 길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장성호 수변길'에 또 하나의 재미가 생겼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장성호 상류 지역인 장성읍 용곡리 협곡에 장성호를 가로지르는 노란 출렁다리를 완공하고 개통에 들어갔다.

장성군은 장성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성호 수변길 34km 중 1차 조성 구간 중 협곡에 154m 길이(폭 1.5m)의 출렁다리를 조성해왔다.

출렁다리는 한 번에 1000여명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지어졌다. 양 끝에 비상하는 황룡 두 마리를 형상화한 21m 길이의 주탑이 우뚝 솟아 옐로우시티로 거듭나는 장성군의 도약을 보여주도록 설계됐다. 이 때문에 이름도 '옐로우 출렁다리'이다.

출렁다리는 수변길 시작점에서 1.2km 지점과 2.7km 지점을 바로 연결하고 있어 수변길의 완주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개통 전에 출렁다리를 건너봤다는 장성군 관계자는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도 무난하게 견뎠지만 옐로우 출렁다리를 건너는 건 꽤나 무섭더라"며 "위아래는 물론이고 옆으로도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심장이 쫓기게 되고 가슴이 철렁해지는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함께 다리를 건너 여성 동료는 두려운지 비명까지 지르더라"며 "아찔한 이벤트를 즐기는 사람들도 옐로우 출렁다리에 도전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옐로우 출렁다리를 걷는 게 스릴 넘치는 까닭은 폭 때문이다. 폭이 고작 1.5m에 불과해 돌이 서면 몸이 닿을 정도다. 다리가 심하게 흔들리는 탓에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은 내려놓아도 좋다. 초강력 케이בל로 교각을 지탱하는 덕분에 초대형 태풍이 불어도 한 번에 1000여

명이 통과해도 끄떡없다.

군은 출렁다리가 관광객들이 장성호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아찔한 즐거움까지 만끽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호의 멋진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즐기고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풍경과 최대한 어울리게 설계했다"며 "무엇보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다리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길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장성호 선착장과 북이면 수성리를 잇는 7.5km의 트레킹 코스인 '장성호 수변길'을 조성했다.

산길과 호반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조성돼 숲과 호수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의 백미는 호숫가를 따라 설치된 1.23km 길이의 나무데크길이다.

특히 호숫가 가파른 절벽을 따라 세운 나무데크 다리가 주변 경관과 어울려 그림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장성호 수변길은 지난 2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대한민국 대표 걷기길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옐로우 출렁다리가 장성호 수변길과 함께 장성호를 상징하는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며 "장성호는 물론이고 장성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아름다운 트레킹길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장성호 수변길 나무데크. 장성호 주변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장성호 상류지역인 용곡리 협곡을 가로지르는 노란색 출렁다리가 완공돼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위아래는 물론 옆으로도 흔들리기 때문에 심장이 쫓기게 되는 모험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옐로우 출렁다리와 장성호 전경. <장성군 제공>

장성호·수양제 수상레포츠 천국...전국서 동호인 발길 줄이어

폭폭 찌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장성호와 수양제에 시원한 수상레포츠를 즐기려는 동호인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동호인들 사이에서 장성호와 수양제는 수상 레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장성호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과 파도가 적고 겨울철에도 호수물이 얼지 않는 등 천혜의 수상 스포츠 여건을 갖추고 있다.

수질도 최상이다. 임암산과 백암산 물줄기가 모여 이룬 일급수가 장성호를 가득 채우고 있다.

장성호는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대통령기 전국 조정선수권대회 등이 8년 연속 열릴 정도로 수상 레포츠에 최적화 된 환경을 자랑한다. 오는 7월에도 제34회 대통령기 전국 사·도 대항 조정대회가 열린다.

주변 여건도 잘 갖추어져 있어 초보자들도 안심하고 시원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장성 북하면 백암리에 위치한 장성호 수상스키장을 찾아 교육을 받으면 장성호의 물살을 가르며 땅중보트,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바이퍼,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U-보트, 블롭점프, 디스코보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수상레포츠가 주는 짜릿한 즐거움을 만끽한 뒤에 장성호를 바라보는 곳에 자리한 미락단지를 찾으면



수상레포츠 동호인들이 장성호에서 제트스키를 타며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장성군 제공>

민물고기 요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이곳 식당가에서는 장성의 별미인 메기매운탕, 메기찜, 붕어찜, 청둥오리 주물럭 등을 즐길 수 있다.

별미 요리를 먹고 포만감이 든다면 '장성호 수변길' 산책을 추천한다.

장성호 선착장과 북이면 수성리를 잇는 7.5km 트레킹 코스로 조성된 장성호 수변길은 숲과 호수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장성 삼서면 수양리와 삼계면 월연리에 있는 전

남에서 세 번째 큰 저수지 '수양제'도 수상레포츠를 즐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수양제 합동수상레저타운을 찾으면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래프팅, 플라이피시, 웨이크보드 등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워터시소와 트램블린, 징검다리, 에어 암벽, 미끄럼틀 같은 신종 수상 레포츠 시설을 잘 갖춘 덕에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려는 젊은이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 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